

보도해명자료

(14. 4. 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정부, 통상전문가 외부 수혈” 관련 보도에 대한
해명 (14.4.28, 아시아경제)

1. 보도 내용

- ☐ 정부는 통상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전문가를 외부에서 수혈할 계획이며, 이는 부처내 인력 수급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
- ☐ 금년 들어 외교부 파견 인력이 속속 복귀하여 전문인력 부존이 현실화되었으며,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협상 줄속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외교통상부 당시부터 통상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, '13.3월 정부 조직개편 이후 산업부로 전입되어 계속 통상 업무를 담당해 왔음
 - 금번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는 최근 일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에 따라 동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며, 통상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는 관련 없음
- ☐ 또한, 금년 들어 외교부로 복귀한 인력이 일부 있으나, 대부분의 외교부 파견 공무원은 파견 연장, 산업부 전입 등을 통해 계속 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 - 산업부는 통상 전문인력 부족 문제로 협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내 인력 우선 배치,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최진원 과장(044-203-5740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